

국어 의문문의 유형과 응답 유형에 대하여

양명희

1. 머리말

이제까지 국어 의문문에 대한 연구는 다른 통사적 서법에 비하여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전통적 방법에 따른 의문어미 체계의 수립, 구조기술 언어학적인 형태소 분석, 화용론적 의미연구, 변형생성문법적 접근방식 들로 나누어 연구사가 기술되었는데¹⁾ 언어학의 동향과 관련된 연구태도 가 엿보인다. 이들 연구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의문문의 유형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여러 명칭만큼이나 의문문의 연구가 축적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정확히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다음은 앞선 연구들에서 설정된 의문문 유형을 모아본 것이다.

- ㄱ. 설명 의문문, 내용 질문, 의문사 의문문, 부정사 의문문, 무제한적인 물음
- ㄴ. 판정 의문문, 예-아니오 질문, 찬부 질문, 안가림풀 의문문, 여부 물음
- ㄷ. 선언 의문문, 선정 의문문, 선택 의문문, 가림풀 의문문, 이첩적인 물음
- ㄹ. 부가 의문문, 꼬리 의문문
- ㅁ. 흥내 의문문, 반문, 메아리 의문문
- ㅂ. 직접 의문과 간접 의문
- ㅅ. 질문과 자문
- ㅇ. 순수 의문과 수사 의문

1) 서정목(1980)은 국어 의문문에 대한 연구사를 이 네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자. 보통 의문과 특수 의문, 비표준 질문
- ㅊ. 확인 의문
- ㅋ. 서술적 의문문, 명령적 의문문, 요청 의문
- ㅌ. 사실 의문과 서상 의문
- ㅍ. 잘못 퍼기된 질문과 다르게 제기된 질문 risky question & safe question

이들 외에도 특징적이고 세부적인 하위 유형—다중 의문문, 긍정/부정 판정 의문문, 덜거적/대조적(개별/가부) 선정 의문문—이 있는데, 본고는 이중에 몇 가지 주요한 의문문 유형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 의문문의 유형 분류에 대답 내지 반응이 체계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하고 있음을 인식코자 한다.

형태론적 관점에서 의문어미를 분석하고 기능을 서술하는 것, 의문문의 형식과 의미에 따라 의문문을 유형화하는 것, 의문문의 화용론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은 사실 서로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영역을 구분하려고 한다. 본고는 형태적 특징과 표현적 의미로 나누어 유형을 살펴 보고자 하는데 이런 노력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문문의 유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의문문 연구를 위한 기초를 채움과 연구방향을 제시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

3장에서는 대답의 유형을 살펴 보려고 한다. 대답에 대한 연구는 사실 의문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논의될 수 없는데 형식논리적 입장에서 대답에 대한 형식화가 있었고 화용론적 입장에서 의문어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여러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본고는 의문에 대한 진정한 대답이라고 할 수 없는 유형들에 관심을 갖고 실제 대화에서 있을 수 있는 어쩌면 형식적인 대답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의사대답의 유형을 번역노절대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

2. 의문문의 유형

흔히 의문문의 유형에서 자주 소개되는 것은 김영희(1973), 이익환(1980), 이현희(1982), 장석진(1985) 등이다. 그 이후에 이성구(1983), 노용균(1984) 등이 주목되는데 종합적으로 의문문의 유형을 다루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이들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2.1. 먼저 우리의 관심은 의문문의 유형과 응답간의 관계에 있다. 본고는 논의의 편이를 위해 간접적인 의문은 제의키로 하며²⁾ 통사적, 형태론적 장치에 의한 의문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어 의문문의 역사적 연구에서 의문사의 유무에 따른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은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의미가 교체되었으므로 통사적 현상으로 보아 적합한 것이다.³⁾

(1) 너 어디에 가니 ?

(1)의 의문문은 '어디'를 의문사로 보면 설명 의문문이고 부정사로 해석하면 판정의문문이다.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하는 것은 의문문에 대한 응답을 고려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의문문의 해석은 '어디'라는 어휘의 특질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응답의 고려가 의문문의 의미를 결정하여 유형분류에 깊이 관여함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국어 의문문을 대답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다.⁴⁾ 확인 의문문이니 수사 의문문 같은 소위 특수 의문문은 설명의문문이나 판정 의문문처럼 형태에 의한 분류가 아니고 표현 의미에 의한 분류이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고려가 한층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의 분류는 의문사라는 형태의 유무로 이해하지만 명칭 자체는 의문에 대해 설명을 또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 유무라는 기준에 의한 형태적 유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설명이나 판정을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의문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통사론과 의미 화용론의 영역을 구분하여 의문문의 유형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의문문

2) 간접적인 의문이란 의문형식이 아닌데 의문의 의미를 갖는 예를 뜻한다.

명령형식이지만 의문의 의미를 갖는 다음과 같은 예이다.

네 이름을 대라.

3) 안병희(1965)는 Jespersen의 nexus question과 X-question의 구분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논의를 하였다.

4) 노용균(1984)는 이런 관점에서 물음을 종결적인 대답을 기준으로 하여 제한적 물음과 무제한적인 물음으로 나누고 다시 제한된 물음을 여부물음과 이접적인 물음으로 나누고 있다.

을 행태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한편 그 표현적 의미에 따라 화용적인 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응답과의 관계에서 의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는 주장에서 나온 예문이다.⁵⁾

(2) 철수가 밥을 먹었니?

- ㄱ. 응, (그래) (먹었어) ㅋ'. 아니, (안 먹었어)
- ㄴ. 누가 밥을 먹었다고?
- ㄷ. 그건 왜 물어?
- ㄹ. 넌 알 필요 없어.
- ㅁ. 나는 몰라.
- ㅂ. 무답

(2)의 의미는 ㄱ의 응답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의문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상적이지만 나머지 ㄴ~ㅂ은 대답보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예이다. 의문의 의미를 통사적 관점에서 고려할 때 (2)의 ㄴ~ㅂ은 전혀 의문문의 유형 분류에 의의가 없다. 즉 ㄴ~ㅂ처럼 대답했다고 해서 (2)의 의문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 ㄴ~ㅂ의 반응은 (2)의 의문의 의미를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지 만약 (2)를 수사 의문문으로 해석한다면 대답은 전혀 필요치 않게 된다. 물론 응답은 절대적으로 의문의 의미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문의 의미를 화용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면 (2)의 ㄴ~ㅂ의 예들은 (2)의 상황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ㄴ~ㅂ의 반응은 대답의 유형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도 역시 의문의 의미를 고정화시키고 그에 대한 응답이 의문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음을 증거한 예이다.⁶⁾

(3) 철수가 학교에 갔니' 영희가 갔니?

- ㄱ. 철수가 갔다. ㅋ'. 영희가 갔다.
- ㄴ. 둘다 갔다.
- ㄷ. 아무도 안 갔다.

5) 이성구(1983:7-11) 참조.

6) 상계서 참조.

(3)의 의문문의 의미는 ‘철수나 영희 중 한 사람이 갔다’를 약정 함의로 한다. 그래서 ㄴ과 ㄷ으로 응답한 경우 (3)은 타당치 않은 의문(invalid question)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ㄴ과 ㄷ은 있을 수 있는 대답으로 (3)의 의문의 의미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3)이 단지 두 항목간의 선정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개별적인 항목들에 대한 질문의 의미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역시 이러한 의문의 의미는 상황적 의미이므로 화용적 관점에서 폭넓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의문문은 그 형식에 따른 중립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응답이 의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의 상정이 있어야만 그 의문의 의미는 명확해진다. 또한 의문문 이전의 선행 발화도 의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전제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4) 철수가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니 ?

- ㄱ. 그래 안 갔어. ㄱ'. 아니 갔어.
- ㄴ. 그래 갔어. ㄴ'. 아니 안 갔어.

(4)의 의문문에 대한 네 개의 응답이 모두 가능한 것은 선행발화나 담화의 상황이 관계된다. 그때 의문문의 의미 역시 상황적 의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장 하나만을 놓고 형태의미만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하지만 응답을 고려하여 의문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할 때는 이 의문문에 대한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와 관련된 의문문 유형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세분화해야 한다.

2.2. 앞에서도 잠시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 대해 언급했지만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제 기능을 갖고 적합한 대답을 요구할 때 구분이 명확하다.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중 선정 의문문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존 논의에서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이현희(1982)는 선정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의 특수한 경우로 보아 선정 의문문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⁷⁾

7) Katz(1972), 서정목(1979)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안병희(1965)에서도 선정의문을 판정의문에 포함시켜 다루었는데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은 선정 의문문을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 (5) (이-8) ㄱ. 병윤이가 밥을 하니, 밥을 하지 않니?
 ㄴ. 병윤이가 밥을 하니?

(5ㄱ)은 가부 선정의문문으로 (5ㄴ)의 판정 의문문의 내재적 의미와 같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지적했듯 두 의문문은 통사구조가 다르며 형태가 다른 만큼 사용되는 상황도 구분되어 나타날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개별 선정의문문에서는 판정 의문문이 아니라 설명 의문문으로 그 구조를 설명해야 한다.

- (6) ㄱ. 철수가 학교에 갔니, 공원에 갔니?
 ㄴ. 철수가 학교와 공원 중 어디에 갔니?

한편 판정 의문문을 선정 의문문의 특수한 부류로 기술하거나 설명 의문문의 특별한 부류로 나루기도 한다.⁸⁾

- (7) ㄱ. 철수가 가느냐?
 ㄴ. 철수가 가느냐, 안 가느냐?

(7ㄱ)의 판정의문문은 (7ㄴ)의 선정의문문에서 후반의 변형되어 이루 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⁹⁾ 또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선정 의문문 (6ㄱ)의 예는 (6ㄴ)같은 설명 의문문의 특별한 부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문문 유형에서 선정 의문문은 다른 의문문과 따로 설정된다. 형태의 차이도 있을 뿐 아니라 화자가 의문을 대하는 태도와 의미에서 차이가 나며 결국 쓰여지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기본적으로는 형태적인 방법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응답과의 관련은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구(1983)은 미지정보의 양(정도)에 따라 의문문을 유형화하였다. 미지정보의 양에 따라 설명 의문문, 선정 의문문, 판정 의문문, 추측 의문문, 확인 의문문으로 구분하였는데 (6ㄴ)과 같은 예를 선정의문으로 본다.

- (8) (이-36) ㄱ. 철수와 영희 중 누가 가니? 영희가 간다.
 ㄴ. 철수와 영희 중 누가 가니? 그래 둘 중 한 사람이 간다.

8) Bolinger(1978), 장경희(1982)의 입장이다.

9) 구체적으로 장석진(1973), 김영희(1975)에서 이런 주장이 나타난다.

그는 (8ㄱ)을 선택항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선정 의문문으로 보고, (8ㄴ)은 선택항이 있음에도 판정 의문문이 된다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취한다. 이런 입장은 의문사가 있는 선정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의 특수한 부류로 보는 입장과는 태도가 다르다. 미지항이 불특정한 경우는 설명 의문문이 되고 둘 이상의 유한항 중의 선택이라면 선정 의문문인 것이다. 선택항을 제외시키면 (8ㄱ)은 설명 의문문이 되고 (8ㄴ)은 판정 의문문이 된다. 그렇다면 굳이 (8ㄱ)에 나타나는 의문사를 설명 의문문의 의문사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여기서도 의문을 분류하는데 응답이 기준이 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8ㄱ)을 선정 의문문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적합한 대답을 선택항 중에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정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 모든 형식에 선택사항이 주어진다면 가능한 것으로 의문사 유무와는 상관없이 독립된 의문형식으로 인정하고 (8ㄱ)을 설명 의문문이면서 선정 의문문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8ㄴ)은 의문의 촛점이 선택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판정 의문문으로 보기로 한다.¹⁰⁾

2. 3. 앞서 우리가 논의한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 선정 의문문은 청자에게 응답을 요청하는 기본적 기능을 지니는 의문문이다. 반면 차문이나 의문체기형은 의문의 부차적 기능으로 형식은 다른 바가 없지만 의미와 기능의 특수성으로 흔히 특수의문이나 비표준 질문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다.¹¹⁾ 그런데 이들 역시 분류기준이 일정치 않아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의문이란 언어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며 의문문은 형태적 통사적 장치를 갖춘 것이라 하지만 의문문의 유형에서 비언어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먼저 언어적 행위가 요구

10)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8ㄴ)도 형식적으로 보면 선택항이 주어졌으므로 선정 의문문이다.

11) 특수의문은 김영희(1975), 이현희(1982)에서 사용된 용어로 김영희(1975)는 서술적 의문문, 명령적 의문문, 수사적 의문문, 꼬리 의문문, 흉내 의문문으로 분류했고 이현희(1982)는 확인 의문문, 수사 의문문, 반문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들은 특수의문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아니므로 잠정적이다. 비표준 질문은 장석진(1973) 이후 사용되어 장석진(1985)에서 퀴즈, 매아리, 수사의문, 부가의문, 요청의문으로 정리되어 있다.

되는 특수의문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부류들을 논의키로 한다.¹²⁾

2. 3. 1. 부가의문은 형태구조상 특징에 의해 붙여진 명칭으로, 장석진(1984)는 ‘—지 않—’의 형식의 전형적 부가의문과 대용어 부가의문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김동식(1981)은 전형적 부가의문에 대해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근거로 특별한 규칙을 통해 형성되는 ‘확인문’이라는 독립된 문형을 설정하였다. 부가 의문문을 확인의문의 일종으로 보는 태도는 다른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9) ㄱ. 비가 왔지 않습니까 ? (*부정의문, 부가의문)

ㄴ.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 (부정의문, *부가의문)

ㄷ. 비가 오지 않습니까 ? (부정의문, 부가의문)

위와 같은 판단은 부가 의문문의 꼬리를 시제를 나타낼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 가능한 것이다. 일견 형식적 분류법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타당성 있는 설명이 없다. 영어의 꼬리부분이 본문과 시제의 일치를 보이는 것과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9ㄷ)에서 볼 수 있듯이 보문과 꼬리가 다무시제일 경우는 부가의문과 부정의문의 중의를 떤다고 한다. 됨의 차이로 이들은 구분되는데,¹³⁾ 문제는 영어의 부가의문문을 국어에 적용할 때 형식적 개념을 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미적 개념을 우선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다. 부가 의문문은 형식적 개념이 아닌 의미적 개념에 의한 분류라고 한다.¹⁴⁾ 동의나 확인을 요청하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9ㄴ)과 같은 부정 의문문도 확인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의미적 기준이 형식적 개념보다는 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전형적 부가의 문문을 확인의문으로 본다면 꼬리는 형식이 축소 기술되어야 한다.

2. 3. 2. 확인의문이라고 지칭되는 부류들은 형태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가 의문문과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

12) 언어적 행위가 요구된다고 해서 비언어적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며 비언어적 행위를 행 할 때에도 언어적 행위가 덧붙여질 수 있다. 일격히 언어적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수사의문, 명령적 의문, 자문, 반문 등이고 비언어적 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명령적 의문문뿐이다.

13) 김동식(1980) 참조. 부정 의문문은 ‘아니’에 강세가 주어지며 부가 의문문은 ‘—지’ 앞에 강세가 놓인다.

14) 장석진(1984-)의 입장이다.

를 달리 표현한다면 부가 의문문과 확인의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확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언어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의문은 의문의 의미에 의한 명명이라는 점에서 부가 의문문과는 구분된다. 그러므로 확인의문으로 지칭되는 것은 화용적 개념이다. 상황에 따라 즉 화자의 의도나 전제에 따라 선정 의문문이나 판정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 확인 의문문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흔히 의문어미 「지」를 갖는 의문문을 확인 의문문으로 기술하고는 있지만 확인 의문문을 형태적 유형으로는 볼 수 없다.

- (10) ㄱ. 오늘 배가 들어 오겠지 ?
 ㄱ'. 오늘 배가 안 들어 오겠지 ?
 ㄴ. 명희는 논문 다 썼겠지 ?
 ㄴ'. '명희는 논문 안 썼겠지 ?
 ㄷ. 그 사람 왔지 않니 ?
 ㄷ'. 그 사람 안 왔지 않니 ?

(10)의 의문문은 종래 확인의문이라 불린 것이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 이들은 자문의 형식도 될 수 있고, 의심이나 놀라움 등 부차적 의미를 띠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차적 의미들은 간접화행에서 세밀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세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능력의 부족으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확인의문이 특수의문 중 언어적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이 다른 특수의문과 다른 것임을 지적할 뿐이다. 「어」나 「니」에 의한 의문도 상황에 따라 확인의문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화자의 확신정도는 차이가 있다.¹⁵⁾

2. 3. 3. 수사의문은 형식상 의문문이나 '기능상 긍정과 부정을 단언하는 화행으로 볼 수 있다.

- (11) ㄱ. 재모가 돌아와요 ?
 ㄴ. 재모가 안 돌아와요 ?
 ㄷ. 누가 돌아와요 ?

15) 이현희(1982:8-9)에 의하면 「니」, 「어」, 「지」의 순서로 화자의 확신정도가 강해진다고 한다. 어미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억양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11ㄱ)은 긍정 판정의문문, (11ㄴ)은 부정 판정의문문, (11ㄷ)은 설명의문문으로 상황에 따라 긍정 수사의문은 강한 부정단언으로 부정 수사의 문은 강한 긍정단언으로 해석된다. 수사의문이 확인의문과 다른 점은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문문의 유형에서 따로 범주화하면 된다.

2.3.4. 명령적 의문 혹은 요청의문이라 지칭되는 의문문도 수사의문처럼 서술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ㄱ. 춤지 않니? (문 좀 달아라)
 ㄴ. 문 좀 열어 줄 수 있겠어요?
 ㄷ. 좀 도와 줄래?

명령적 의문은 간접화행의 의미가 명령, 요청의문은 간접화행의 의미가 요청인 의문문형식이다. 이처럼 이들 유형은 수사의문과는 달리 청자의 비언어적 행위가 감정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히려 의문보다는 명령이나 요청의 화행연구에서 허가명령문, 내포명령문, 비명시적 명령문으로 논의되는 것인데 본고는 의문문의 형식을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명령문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들 의문문도 형식적 특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좀’이나 ‘—어 주—’의 보조어간, 어미 ‘—고 래’의 사용 등이 관련될 수 있으리라 본다.

2.3.5. 자문은 스스로에게 하는 의문으로 청자가 상정되지 않아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을 가리킨다. 그러나 한편으로 응답자가 화자 자신이라면 정보를 얻기 위한 의문문과 동일한 적절조건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므로 보통의문문과 다를 바가 없다. 자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상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13) ㄱ. 내가 갔다 올까?
 ㄴ. 내가 정말 예쁠까?
 ㄷ. 네가 정말 할 수 있을까?
 ㄹ. 재모가 일등을 할까?

(13)은 모두 자문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상황에 따라 청

자의 동의를 구하는 보통 의문문으로도 사용되며, 의심내지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문은 철저히 상황적 의미로 유형화된다.

2. 3. 6. 반문은 의문의 형식은 갖지만 의문문에 대한 반응으로서는 의문보다 응답의 유형에 가깝다.

(14) 밥 먹었니 ?

ㄱ. 밥 먹었냐고 ?

(15) 재모가 소풍을 갔어요.

ㄱ. 재모가 소풍을 갔다고 ?

ㄴ. 재모가 어디에 갔다고 ?

(14ㄱ)은 반문으로 바로 앞의 의문문에 대해 거의 같은 형식으로 되물음을 하고 있다. 이때는 의문에 대한 응답에 가까운데, (14ㄱ)은 상황에 따라 확인의 의미뿐 아니라 정중함이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반복, 농담이나 불신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15ㄱ)과 (15ㄴ)은 의문문이 아닌 문형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갖는 반문이다.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4)와 (15)의 예는 청자가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화자가 묻는 형식인데 반문에 제삼자가 말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16) ㄱ. 어제 학교에 갔었다면서(며, 고) ?

ㄴ. 정말 재모가 합격했다니 ?

(16)의 그 예인데 확인의문의 성격이 강하다. 반문은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확인의문은 화자가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16)을 반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4)나 (15)보다는 더 복잡한 텍스트 즉 상황을 가정할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화자에게는 제삼자가 말한 내용을 재차 묻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청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의 예를 순수한 의미의 반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문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확인의문과 구분할 수가 없다.

이제까지 국어에서 흔히 논의되는 특수의문을 살펴 본 결과 그 기준이 일정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서로 겹쳐지는 예도 있었는데 의문형식이지만 의문외에 명령이나 요청, 확인 등 다른 의미를 띠는 것이

기준이 되고, 의문보다는 단언의 의미를 갖는 것이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자문은 청자상정의 유무가 기준이고 반문은 그 전의 발화내용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으로 의문문 자체만으로는 판단이 분명치 않고 언어외적 상황을 어느정도 가정해야만 확실한 유형들이다. 공통점은 의문의 기본적 의미 즉 새로운 정보요구가 아닌 부차적 의미들이 우형화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간접화행의 연구업적에 따라 다른 유형의 의문문이 더 많이 논의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보다 일정한 기준의 적용과 의문을 이루는 형식—의문사, 의문어미, 억양 등—과의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제이고 불필요한 분류라는 비판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3. 응답의 유형

2장에서는 의문문의 유형을 검토하였는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의문형식이 아닌데 의문의 의미를 지닌 예는 제외하고 의문의 부차적 의미에 의한 분류도 주로 논의되었던 것만 살펴 보았다. 응답의 유형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관점에서 논의될텐데 먼저 의문형식이 진정한 의문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한 응답만을 고려키로 한다.

3. 1. 우리의 논의는 박태현(1983)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그는 하나의 텍스트 「번역노걸대」를 중심으로 물음과 응답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흔히 통사론에서 물음—응답관계를 정형화시켜 놓은데 반박하여 화용론적 상황에서 예상된 응답에서 일탈된 예를 몇가지 들고 있다.

(17) ㄱ. 땐데 슬거우너 엊더한고

ㄴ. 내 맛보과라

(17)만을 보면 (17ㄴ)은 응답의 규칙에 어긋난 것이나 전체 텍스트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17ㄴ) 뒤에 다음과 같은 응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7) ㄴ'. 저기 슬거운 줄이 있다. (상 : 22)

(17ㄴ)은 (17ㄱ)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될 수 없음은 분명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전혀 잘못된 반응으로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뒤에 가능한

응답(17ㄴ')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단순히 일탈된 응답유형으로 분류시킬 수는 없다. 단지 응답을 드는 한 화제일 뿐이다.

(18) ㄱ. 이 버든 누고

ㄴ. 遼東 이너기와 모다오라

더 죠 여려필 뜻를 가져 혼디 모라오라

ㄴ'. 더는 한인이나 요동자새서 사더라(하 : 6)

(18ㄱ)에 대한 (18ㄴ)도 마찬가지다. (18ㄴ)이 진리의미론적인 직접응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8ㄴ')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18ㄴ)의 내용은 과정보적 대답이라 할 수 있다. (18ㄴ)은 (17ㄴ)과 달리 한 응답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박태권(1983)은 결국 화용적 관점에서 물음—응답관계를 살피겠다고 하면서는 통사적 일탈만을 그것도 임의로 제한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두 예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처럼 응답의 화용적 연구는 또다시 상황을 전제한다는 가정하에서도 하나의 물음에 하나의 응답만을 문제삼음으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3.2. 장석진(1975)는 화용상 즉 화청자간의 가정의 일치, 불일치 또는 간접적 비표현력의 이해 등의 요인을 고려에 넣는 폭넓은 문답의 논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진리조건적 의미론에 의한 의문—응답의 논리화도 연구가 거의 진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의 화용적 연구라는 것은 그 발을 내디디기 어려운 상황이다.¹⁶⁾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연구가 통사적 관점에서 문답관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실제 상황에서 텍스트를 이해 분석한다고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응답을 모두 고려키로 하겠다.

(19) 누가 오니 ?

(20) ㄱ. 철수하고 미아하고요.

ㄴ. 철수하고 미아가 와요.

ㄷ. 아무도 안 와요.

ㄹ. 아무도 안 온다고요.

16) 진리조건적 의미론에 입각한 의문—응답 관계는 고성환(1987)이 대표적이다.

- ㅁ. 미아는 안 보이네요.
- ㅂ. 신문을 안 봤어요.
- ㅅ. 잡이나 잡시다.
- ㅇ. 비가 와요.
- ㅈ. 둘 더하기 둘은 넷이예요.

(19)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반응 (20)은 과연 모두 응답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가?¹⁷⁾ 우리의 직관으로 가능한 반응이기는 하나 질문의 전제가 문제된다. (19)를 ‘누구’에 대한 정보요구의 질문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대답은 (19ㄱ)–(19ㄹ)이 될 것이다. (19ㄱ), (19ㄴ)은 (19)를 설명의문으로 (19ㄷ), (19ㄹ)은 판정의문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화자가 미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청자가 알고 있을 때 (20ㅁ) ‘누구’라는 질문의 전제를 고려했으므로 기저논리구조를 바탕으로 하면 역시 (19)를 정보요구의 질문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응답의 해석은 질문의 전제가 단서가 됨을 주의해야 한다.

Katz(1972)는 질문의 전제를 받아들이는 범위 안의 응답을 가능한 응답(possible word)이라 하고 질문의 회피(evasion), 질문의 거부(rejection), 응답자의 무지를 가능한 응답에서 제외하고 있다. 질문의 회피는 전제만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설명의문 (19)에 대해 ‘누구’를 답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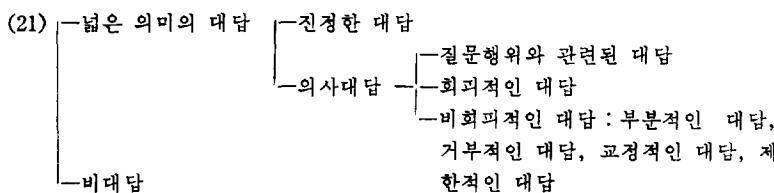
(20) ㅊ. 누가 와요.

질문의 거부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19)를 화자가 누가 온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설명의문으로 해석할 때 (20)의 ㄷ, ㄹ이 질문의 거부가 된다. (20ㅇ)도 질문의 거부로 해석될 수 있다. 응답자의 무지는 질문의 전제를 이해는 하지만 그 답을 모르는 경우로 위의 예에서 (20ㅂ)이 상황에 따라 무지로 해석될 수 있다. (20ㅅ)은 응답자의 무지로도 해석되지만 알면서도 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질문의 회피나 질문의 거부는 응답자가 답을 안다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20ㅈ)의 동문서답은 화자가 ‘누구’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의 회피나

17) 장석진(1975)의 예이다.

거부로 모르면 무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까지 (20)의 ㅂ—ㅈ에 대한 해석은 응답의 유형도 기저논리구조를 바탕으로 해야 체계화가 가능하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준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표면구조가 여러가지 응답의 유형으로 분포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자세한 대답분류는 고성환(1987)에 소개되어 있다.¹⁸⁾ 기본적 가정은 대답을 반응으로 보며, 분류 기준은 질문의 정보요구를 얼마나 잘 만족시켜 주느냐하는 것이다.



(21)이 그 분류인데 이외에도 비확정적 대답, 과정보답 대답과 대답의 묘사방식에 따른 직접적 대답, 간접적 대답이 있으나 분류기준이 다르므로 포함되지 않았다. 본고는 이들 유형에 대해 하나하나 논의는 하지 않고 다만 잠정적인 의사대답의 유형이 실제대화의 연구에서 필요한 것임을 거듭 확인할 뿐이다.

비회피적인 대답 중 부분적인 대답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자. 부분적인 대답(partial answer)은 질문자의 정보요구를 부분적으로만 만족시켜 주는 대답으로 불완전 응답(incomplete answer)과는 진위의 차이로 구별되다고 한다.¹⁹⁾

- (22) ㄱ. 철수가 뭘 먹었대?
ㄴ. 맛있는 걸 먹었대.

(23) ㄱ. 누가 재료를 보았니? (명희와 수현이가 봄)
ㄴ. 명희가 보았어요.

(22)는 부분적인 대답의 예, (23)은 불완전 응답의 예로 위의 기준대

18) 고성환(1987)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다음 기회에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답'이라는 용어는 그의 용어를 그대로 쓴 것뿐이다.

19) 이익환(1980고:50)의 주 10 참조.

로 하면 (22ㄴ)은 진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는 대답이고 (23ㄴ)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항상 진인 대답이다. 그런데 진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다는 기준은 잘못하면 대답자체의 진위를 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분적 대답은 불완전 응답의 한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 (22ㄴ)은 진정한 대답은 아니지만 (23ㄴ)은 진정한 대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4) ㄱ. 너희들은 주말에 뭐 하니 ?

ㄴ. 나는 빨래해요.

(24)는 부분적인 대답의 예로 논의된 것인데 우리의 기준대로 하면 불완전 응답이다. 우리는 위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불완전 응답을 부분적인 대답과 구별하여 응답의 한 유형으로 논의하겠다.

회피적인 대답은 진정한 대답이 인식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화용적으로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대답으로 Katz(1972)의 응답의 무지와 질문의 회피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본고는 응답자의 무지와 알면서도 대답을 회피하는 두 유형을 구분해서 사용키로 한다.

3. 3. 3.2에서 살펴본 응답유형이 실제 텍스트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 보자. 번역노걸대는 회화체로 응답관계가 많이 나타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직접적 대답과 간접적 대답부터 알아보자. 직접적 대답과 간접적 대답은 대답의 묘사방식에 의한 분류로 모든 대답은 두 대답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통사론에서는 직접적 대답을 자료로 연구를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간접적 대답이 많이 나타나며 앞으로 살펴 보겠지만 번역노걸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 두 대답은 공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이 그예이다.

(25) ㄱ. 그 버디 이제 미쳐 올가 몰 올가

ㄴ. 이 버디 곤 거니 어재 죠 오다(상 : 10)

(25ㄴ)은 앞 부분만을 보면 간접적 대답이고 뒷 부분은 직접적 대답이다. 물론 직접적 대답이 더 중요하고 간접적 대답은 질문에 대해 부수적인 것이겠지만, 이처럼 실제 대화에서는 두 대답이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응답자의 무지가 표현된 예를 보자.

(26) ㄱ. 이 총이 무리 나히 언멘고

ㄴ. 네 니 자바보라 내 보파라 이 다웃 고리 다 업다 ㅋ장 늙도다(하 : 1)

(26ㄴ)은 자신의 무지함을 장황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26ㄴ) 뒤에 다음과 같은 발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6) ㄱ'. 네 물 나흘 모른는 듯하다.

다음은 제한적인 대답의²⁰⁾ 예인데 응답자의 무지가 먼저 표현된 후 제한적이며 비확정적인 대답이 뒤따른다.

(27) ㄱ. 네 이 늙고름의 북경의 갈가 가디 몬 훌가

ㄴ. 모로리로다 그 모를 엊디 너르리오

하늘히 어엿비 너기사 모미 편안한면 가리라(상 : 2)

(27ㄴ)의 앞 부분은 응답자의 무지를 나타내고 뒤따르는 대답은 제한적인 비확정적 대답으로 정보의 비정확성을 표현하는 대답인데 실제 대화에서는 이처럼 어울릴 수 있는 유형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회피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8) ㄱ. 이 땀에 모시뵈 풀 高麗人 나그내 李개 잇느너

ㄴ. 네 더를 초자 므슴핥다

ㄱ'. 내 더 소뇌 아주미라니 앗가 ㅈ 高麗人 쪽해서 오다

ㄴ'. 앗가 ㅈ 나가니 羊져제 가니라(하 : 1)

(28ㄴ)은 질문의 회피로 답을 해 줄 수 있는데도 의문의 형식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뒤따르는 (28ㄴ')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28ㄴ)은 다음 대화를 이끌어 가는 구실을 하고 있는데 결국 (28ㄴ')으로 (28ㄱ)에 대한 대답을 간접적으로 하였다.

불완전 대답은 정보의 양과 관련된 유형인데 단순히 두 발화를 통해서 불완전 대답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긴 대화에서 비로소 선행대답이 불완전했음을 판단하게 되는 상황도 있다.

(29) ㄱ. 네 高麗人 쪽해서 므슴 천을 가져온다

20) 고성환(1987:48-49) 참조.

- ㄴ. 내 여러필 물를 가져오다
- ㄱ'. 또 모슴 천 잇느뇨
- ㄴ'. 별히 아웃것도 염거니와 쳐기 人蔴과 모시뵈 있다(하 : 2)

(29)의 ㄱ, ㄴ-만으로는 (29ㄴ)이 불완전 대답인지 알 수 없는데 (29ㄱ')의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29ㄴ')와 같은 대답이 나오므로 (29ㄴ)을 불완전 대답으로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질문에 상황이 바뀌어 질문자가 달라졌을 때 불완전 대답을 하지 않고 완전한 대답을 하는 예가 같은 텍스트에 나타난 것이다. (30)이 그 예이다.

- (30) ㄱ. 네 모슴 천 가져온다.
 ㄴ. 내 여러필 물 가져오니 조 인삼과 모시뵈도 있다(하 : 5)

「번역노걸대」의 응답은 상당부분이 과정보적 대답이라 할 수 있다.

- (31) ㄱ. 성이 므스것고
 ㄴ. 이는 성이 金개니
 이는 내 아비 동성누의와 어비 동성오라뵈게 난 형이오(상 : 15)
- (32) ㄱ. 나그내여 너는 또 성이 므스고
 ㄴ. 小人의 성은 王개로니
 遼東갓안해서 사노라(상 : 44)

(31ㄴ)과 (32ㄴ)은 과정보적 대답으로 물론 질문자의 의도를 응답자가 미리 알고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보적 대답은 다음 대화에서 화제를 제시케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이 더 중요하다. 과정보적 대답은 질문에서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통사적 연구에서는 문답관계 기술의 대상이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화용적 관점에서는 그 과정보적 대답도 질문의 의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대화분석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번역노걸대」라는 하나의 텍스트 속에 있는 문답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대답의 응답유형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유용함을 알게 됐다. 물론 미처 예를 발견치 못해 논의되지 않은 유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사대답의 유형이 국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을 것으로 딛는다. 한편 텍스트를 이해할 때 어느 한 유형에 제한된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의미나 상황상 몇 가지 공존할 수 있는 유

형들의 존재와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다양한 유형—과 하나의 대화만을 떼어 내 분석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텍스트 이해방식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돼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성환(1987), 의문의 문답관계에 대한 연구, 국어 연구 75
- 김동식(1981), 부정 아닌 부정, 언어 6:2
- 김영희(1975), 의문문의 이접적 특성, 문법연구 2
- 김정아(1985), 15세기 국어의 ‘—ㄴ가’ 의문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4
- 노용균(1984), 국어 의문문의 통사와 의미, 서울대 대학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종갑(1987), 국어 의문문의 의미기능 연구,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태권(1983), 물음과 응답의 관계 : 번역노절대를 중심으로, 경북옥선생 환갑기
념논총
- 서정목(1979), 경남방언의 의문법에 대하여, 언어 4:2
- 서정수(1985), 국어 의문문의 문제점, 국어학논총 : 선오당 김형기선생 팔지기념,
창학사
- 안병희(1965), 후기 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학술지 6(전국대)
- 이성구(1983), 국어의문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
위논문
- 이익환(1980-), 의문문의 의미, 어학연구 16:2
- _____(1980-), Korean Particles, and Question: Montague Grammar Appr-
oach, 한신문화사
- 이현희(1982), 국어어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52
- 장경희(1982), 국어 의문법의 공정과 부정, 국어학 11
- 장석진(1973), 話의 생성적 연구, 어학연구 9:2
- _____(1975), 문답의 화용상, 어학연구 11:2
- _____(1982), Non Standard Question: Polarity and Contrast, 어학연구 18:1
- _____(1984-), 화행의 이론과 실제 : 동문서답, 어학연구 20:1
- _____(1984-), 국어의 부가의문문, 언어 9:2
- _____(1985), 화용론연구, 탑출판사
- 정주리(1989), 국어의문문의 의미에 대한 연구—화용적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olinger, D.(1978), Yes-No Questions Are Not Alternative Question,in Hiz ed.(1978)

Emanuel A. Schegloff(1978), On Some Question and Ambiguities in Conversation, in Wolfgang U. Dressler eds.(1978)

Hiz(1978), Question, D. Reidel Publ. Co., Dordrecht, Holland

Katz, J.J. (1972), Smantic Theory, Harper & Row, New York

Lyons, J. (1977), Smantics 1.2, Cambridge Univ. Press

Searle, J.R. Kiefer, F. and M. Bierwisch eds.(1980),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s, D. Reidel Publ. Co., Dordrecht, Holland

Wofgang U. Dressler(1978), Current Trends in Textlinguistics,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翻譯老乞大 上 下, 대재 각영인본